

LG화학, 편광필름이 성장동력

삼성증권, 2006년 하반기 수익개선 ... 2007년 영업이익 기대

삼성증권은 9월7일 LG화학의 편광필름사업이 2006년 하반기부터 LG화학의 실적개선을 이끌 것으로 전망하며 매수의견과 함께 새 목표가로 종전보다 12.5% 높아진 4만9500원을 제시했다.

이을수 애널리스트는 “목표가 상향 조정은 밸류에이션 기준을 2006년에서 2007년으로 전환하면서 2006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한 실적회복 기대를 반영한 것”이라며 “특히, 정보전자소재 사업부문 편광필름의 실적개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다”고 설명했다.

또 편광필름사업의 호조 가능성을 높게 본 이유에 대해 “일본 LCD 소재기업들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편광 필름사업과 관련된 시장의 우려 가운데 공급과잉 심화와 원료공급 부족 우려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 LCD기업들의 가격인하 압력에 대해서는 광폭필름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평균 판매단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”이라고 분석했다.

삼성증권은 “평균판매가와 12%내외의 영업이익률이 유지되는 가운데 2007년에는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”며 “2007년 LG화학의 실질적 영업이익을 개선시키는 동인이 될 것”이라고 내다봤다. (서울=연합뉴스 김종수 기자) <저작권(c)연합뉴스-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09/07>